

# 6

북창: 만주국의 일본인식 100년

##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한석정



- (위) 자원개발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하는 만주국 국무원의 선전 포스터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만철 노선도, 만주군 소위 임관 직전의 박정희, 새마을운동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박정희



## 1. 들어가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논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해방, 냉전, 공업화, 민주화 등 한국 현대사 상당 부분을 건드리는 어려운 작업이다. 박정희 개인이나 그의 개발체제에 대한 논평들은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서 문화, 심리학적 접근에<sup>1)</sup>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근자에 미국정부의 해제문서 등을 통해 ‘박정희시대’(1961~1979)에 대한 연구들이 일고 있으나 대체로 논의를 이 시기에 국한하는 편이다.<sup>2)</sup>

이 글은 논의의 빈 공간인 개발체제의 식민적 연원을 논한다.<sup>3)</sup> 일본제국은 약 70년간 존속한, 타이완, 조선, 만주, 중국본토, 마침내 동남아, 태평양 도서에 이르는, 그리고 팽창의 시기에 따라 비공식제국, 공식제국, ‘독립국’(만주국), 그리고 동양, 동아의 평화, 홍야, 오족협화, 대동아공영 등 통치양식의 미묘한 차이와

\* **지은이** | **한석정**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만주국 초기의 국가형성에 관한 논문으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관심분야는 해방전 조선-만주 관계, 한국 국가형성과 문화에 미친 만주의 영향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편저), 역서로는 『화려한 군주』,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등이 있다.

1) 그의 심리적 고아의식에 대해 전인권,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76~82쪽 참조.

2) 역사문제연구소, 『박정희시대의 역사성』(심포지움 발표집), 2003; 홍석률 외,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참조.

3) 그간 주로 저널리스트한 수준에서 개발체제에 영향을 준 메이지유신의 부국강병 이념, 한일회담 이래 ‘한일유착’(개발체제 지도자들과 일본 전전 관료 출신 정치인들 간의) 등이 제기되어 왔다. 전인권,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99~105쪽; 이준식, 『박정희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홍석률 외,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김형기, 『일본의 만주형 발전모델이 박정희정부 산업화에 미친 영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7 그리고 일반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선일보사, 1998 등 참조.

다양한 이념이 등장한 광대한 영역이다. 제국주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협소한 쌍무적 관계와 '일제'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넘어 특정 지역과 행위자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박정희의 식민지 경험, 특히 만주국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 이 경험이 후일 개발체제의 운영을 과다결정(혹은 예정)했음(over-determined)을, 그리고 그 중요 요소가 독일, 소련 등에서 발원, 만주국을 경유한 하이 모더니즘(총력동원, 건설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발전의 확신)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개발체제의 중요 환경인 냉전시대의 체제경쟁, 한국 사회 동원의 뿌리가 만주국 시기에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sup>4)</sup>

근래 권력/문화/제국주의 분야에서 중요 화두는 호미 바바(Homi Bhabha)의 모방론(mimicry), 즉 식민상황에서 식민지배자는 자신과 비슷하나 꼭 같지는 않은("almost the same but quite")<sup>5)</sup> 인간형을 생산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동서양 제국주의 연구에 두루 적용되는 통찰이나 다소 불완전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스타인메츠(G. Steinmetz)의 보충적 설명은 경청할 만하다. 19세기 말에서 1차세계 대전 종료까지의 독일령 사우스웨스트 아프리카(현재의 나미비아), 사모아, 중국 칭따오(靑島)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모방이 식민 전(pre-colonial) 상황에서도 일어났을, 그리고 이것이 지배자의 의도적 기획일 뿐 아니라 토착인의 통제의 회피(따라서 식민자에 위협적인)임도 관찰했다.<sup>6)</sup> 우리는 이 모방이 시차를 두고 탈식민 상황에서도 이뤄짐을, 그리고 피식민 출신들의 치열한 체제경쟁과 경제적 도약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박정희가 청년시절 만주에서 보고 들었던 어떤 것이 그의 무의식에 각인되었는가? 그리고 만주는 어떤 사람들을 생산했는가?

4) 냉전과 개발체제의 관계에 관해 노영기, 『박정희시대의 군대와 군사문화』, 역사문제연구소, 『박정희시대의 역사성』(심포지움 발표집), 2003, 152쪽;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2006, 153쪽;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80쪽 등 참조.

5)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Y.: Routledge, 1994, pp. 89~90.

6) George Steinmetz, *The Devil's Handwri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 102~104. 그에 의하면, 전자는 주로 식민화 이전의 담론(축적된 토착인의 이미지)에 기대어 이루어지며, 긍정적, 부정적 동일시 두 종류가 있다. 그는 라캉의 상상계(우리가 되고 싶은 이미지인 이상적 에고 ideal ego와)의 상상적 동일시이자, 충실성과 전체성의 영역에 기대어,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에 지위를 초월한 생방향의, 무의식적 동일시가 이루어짐을 주장한다(Steinmetz, *The Devil's Handwriting*, pp. 59~64).

## 2. 만주국 경험

박정희 생전에 그의 만주 체류(1940년에서 1945년까지 만주군관학교 졸업, 일본 육사 유학, 만주국군 장교 임관)에 대한 언급은 금기사항이었다. “일본인 장학사와 싸우고 교사직을 던지고 청운의 꿈을 안고 만주로 갔다”는 공식기술만이 허용되었다. 만주 기억의 억제는 기실 국제적인 —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 현상이었다. 그것은 일본 관동군이 세운 괴뢰국 만주국(1932~1945)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잔악한 일본 파시스트 통치하의 ‘위(僞)만주국’이라 부르면서,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할 악몽으로 여기며 지명도 (청조 이래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만주 대신 동북으로 부른다. 이에 비해 일부 일본인들은 (동아시아인들을 위한) ‘민족협화’의 이상만을 기억했고, 일본정부는 만주국과의 관계에 침묵해 오는 등 만주국은 의도적인 망각의 대상이었다.<sup>7)</sup>

북한에서는 만주에서의 김일성의 독자적인 항일투쟁이 핵심적인 기억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고,<sup>8)</sup> 남한에서는 만주가 공산화로 별안간 망각의 대상이 되었다. 그 틈에 만주는 마구 그려 넣을 수 있는 백지, 전설의 땅이 되었다. 일부 만주 출신들은 독립운동가로 행세했으며, ‘대륙적인 기질’의 소유자들로 낭만화되었다.<sup>9)</sup> 남북한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만주의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국가의 기억관리가 본격화되면서 만주는 1960년대 중반에(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비로소 교과서에서 등장했다.<sup>10)</sup> 이 상황에서, 특히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과 비교되어 박정희의 만주 경험에 대한 언급은 남한사회에서 장기간 금기의 토파이 되었다.

만주국 군관학교의 입시 연령을 초과했던 박정희는 “진충보국 멸사봉공”(盡

7) Gavan McCormack, "Manchukuo: Constructing the Past", *East Asian History*, no. 2, 1991, p. 106.

8) Charles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p. 27~ 28.

9) 서병욱, 「朴正熙의 滿軍人脈」, 『月刊朝鮮』 1986년 8월호, 411쪽 참조.

10) 신주백,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만주연구』 2, 2005, 123쪽.

忠報國 滅私奉公)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로 보내어 입시 자격을 얻었다.<sup>11)</sup> 혈서는 그의 비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1930년대 당시 조선에서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1930년대 만주의 여러 지역에 파견되는 일본 보충부대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상륙,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북상, 기착하는 도시(대구, 대전, 용산, 경성, 평양, 만주의 안동(安東)에서도 대환영을 받았다. 당시 부산의 언론은 “삭북(朔北)의 광야 만주로 가는 제국의 생명선을 사수하는 황군”, “군화발 소리가 부두를 크게 울려”, “동북견아의 정예, 당당 상륙”, “용약 일로 만주에” 등의 큰 제목과 사진으로 이들을 맞았다. 부산, 마산, 대전 등의 (주로 일본인) 소년과 소녀생들이 출정 장병에 혈서를 바치는 등 10대들 사이에서 혈서로 이들을 격려하는 유행이 생겨났다. 대전의 적령미달 청년이 혈서로 지원서를 내었고, 파견 일본군이 탄 열차 안에 “축 대화혼(大和魂) 출정”이라는 혈서가 날아들어 그 주인공을 찾는 소동도 벌어졌다.<sup>12)</sup> 혈서로 입시자격을 얻은 박정희는 1939년 말 만주국 군관학교의 여러 수험지 중 하나인 무단장(牡丹江, 만주국 동부의 대도시)에 올라가 응시, 15위로 합격했다.<sup>13)</sup> 1940년 봄 제2기생으로 입교하여 1942년 450명 졸업생 중 1등으로 졸업, 일본육사에 진학했고, 1944년 다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만주국군 소위로 부임했다.<sup>14)</sup> 그가 일본제국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sup>15)</sup>

당시 조선인들에게 만주는 어떤 존재였는가? 박정희가 만주에 간 배경을 살펴보자. 만주국은 러일전쟁 후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의 위수군인 관동군이 1931년 중국의 군벌 장쉐량(張學良) 체제에 대해 전쟁(9·18 혹은 만주사변이라 부르는)을 도발하고 이듬해 세운 괴뢰국이다. 일본제국의 지도자들은 만주를 통해 서

11)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96쪽.

12) 『釜山日報』, 1933년 1월 19일자, 1월 26일자, 10월 20일자.

13) 그의 동기생인 이한림은 평텐(奉天)에서 응시, 20위를 기록했다. 『滿洲國 政府公報』, 1940년 1월 6일자. 이 날짜에 대한 조갑제의 언급(1월 4일)은 오류인 듯하다(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02쪽).

14) 정세경, 『위인 박정희』, 집문당, 1992, 70, 79쪽.

15) 5·16 전 그가 부산의 어느 술자리에서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기백”을 찬양한 것(이병주, 『우리의 역사를 위한 변명—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96쪽)은 무리가 아니다.

양에 대항하는 자립적 경제블록을 건설하고자 했고, 그 범위를 차례로 중국 본토와 동남아까지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지승자박적 조건을 만들었으니 만주국은 역설적으로 제국의 붕괴를 초래한 셈이다.<sup>16)</sup> 그러나 이것은 소멸을 거부, 동아시아의 전후 체제와 심각한 관계를 맺는다.<sup>17)</sup>

무엇보다, 만주국은 다수 조선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다. 해방 후 상당수 정치인들이 만주의 독립운동가 출신이라 자처했지만, 적어도 만주국시대, 특히 중후반의 항일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주국측이 비적이라 불렀던 항일세력은 1930년대 말 수백 명으로 감소했다. 최후의 무장 항일세력인 동북항일연군은 1939년 겨울부터 조선-만주국 국경에서 끝까지 추격되었다가 궤멸 수준에 이른다.

만주국 건국 이전 일본의 만주 침식은 조선인을 통한 '삼투적 팽창'적인 면이 있었다.<sup>18)</sup> 그로 인해 조선인들은 1920년대 말 일본제국주의의 전위로 인식되어 군벌체제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만주국 건국 후 그 지위는 많이 달라졌다. 토지소유의 제한이 풀렸고, 금융상의 배려가 주어졌다. 1930년대 남부지방(특히 영남권)에 계속된 대형 자연재해로 마침내 선만척식회사(1936)가 설립되어 조선과 만주국의 식민당국은 기획이민을 시행, 1930년대 후반 조선 사회에 만주 이민의 바람이 불었다.<sup>19)</sup> 만주 봄은 일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합 120여만 명(70만의 조선인, 57만의 일본인)의 만주행 이주가 있었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재만 조선인 약 2백만 미만, 일본인 15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sup>20)</sup> 조선과 만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혹은 만주가 조선의 일부분인 양) 조선의 언론에는 만주에 관한 크고 작은 소식이 실려 일상의 관심사가 되었다. 최남선, 강경애, 안수길,

16) 山室信一, 「アジアにおける満洲国と日本人」, 『만주연구』 2, 2005, 86쪽.

17)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 출판부, 2007, 20~21쪽 참조.

18) Park Hyun Ok,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19) 한석정,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 사회학』 37집 5호, 2003.

20) 박경숙,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47쪽; 山室信一, 『キメラ: 満洲国の肖像』(増補版), 東京: 中公新書, 2004, 370쪽.

박영준, 염상섭, 한설야 등 술한 지식인들이 만주에 정착하거나 다년간 거주했다.

박정희는 이 흐름에서 기회의 땅으로 갔다. 1930년대 후반 영남은 만주 송출의 중심지였다. 1933년에 이어 1934년 여름의 수재로 영남의 이재민이 18만에 달해 조선총독부가 만주 이민계획을 언급하자 각지에서 이주 희망자가 속출했다. 1936년 여름의 것은 초대형 수재였다. 영남과 강원 일대가 침수되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의 합이 1백만 명으로 집계되어 관동군 사령관 출신인 미나미(南次郎) 신임총독이 이를 “시정(始政) 이래(합방 후) 가장 큰 참사”라고 인정했다. 식민당국은 선만척식회사를 설립, 만주에 “15년간 매년 조선인의 1만호(5만 명) 자작농 창정”을 발표했다. 경북도청은 개경(開慶) 갱생농원이란 것을 세워 이주 희망자들에게 “만선일여(滿鮮一如) 정신”을 주입하는 등 이민자의 훈련에 앞장섰다. 1937년 3월 대구, 김천, 진주, 밀양에서 이민들이 열차에 올라, 영남지역의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주변에서 만주행 이주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다.

재만 조선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 이들이 만주국의 ‘2등국민’이라는 담론이 오랫동안 유포되었으나 대체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전기에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상공업, 관공서, 전문직 종사 숫자가 미미했다. 이렇다 할 조선인 사업가, 자본, 고관이 없었다. 만주국에 대한 협력자, 실업자, 농민 등 별별 종류가 있었다. 아편, 사창업 종사자들도 많았다. 조선인의 상대적 우위는 후기의 공적 부문이다. 만주국의 1940년 센서스에 의하면 이 시점 조선인들의 1차산업 종사자(42%)는 만주국 평균(약 38%)에 비해 다소 높고, 2, 3차 산업 종사자(9.5%)는 만주국 평균(10.1%)에 뒤진다.<sup>21)</sup> 조선인 공무원자영업이 만주국 평균(2.6%)과 일본인의 것(9.5%)에 비해 낮지만, 약 1만 명의 관공리, 3천 명의 교사, 2천 3백 명의 의사 등 화이트칼라, 혹은 전문직 조선인들이 존재했다. 비록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축탄 등 하급직이었지만, 조선인 관공리는 만주국 전체 관리들 숫자(175,422명)의 5.9%에 이른다. 일본인과 중국인들 간의 관공리 숫자의 목시적 비율(중앙의 경

21)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康徳7年 臨時國勢調査, 日本人編』, 新京, 1940, 61~71쪽, 281~287쪽.

우, 대략 1:1)이 있었으므로, 조선인 관공리들의 증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징집된 재만 일본인 관료들의 공백(혹은 이들의 양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 영역에서 조선인들의 존재는 미미했으나, 관공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와 전문인 계층이 막 성장하던 중에 만주국이 패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에 야심만만한 조선인 청년들은 관공리, 변호사, 의사, 교사, 그리고 명문 국립교육기관들을 포함, 틈새의 자격증까지 꾸준히 만주국의 문을 두드렸다. 만주국은 특히 조선인 의사들의 기회의 땅이 되었다. 1938년 말에서 만주국 패망까지 조선인 의사 등록은 전체의 13%에 이른다. 전체 재만 조선인 인구비율(3.4%)과 비교한다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조선인 고위관리들은 1940년 경 중앙, 지방부서 과장급 10명, 국장급 1명, 사무관급 16명(후일 부산대, 영남대 총장 신기석 포함) 정도를 배출한다. 조선인 밀집지역인 지엔따오(間島)성에서(1933년~1942년 말) 이인기(후일 숙대총장 이인기)를 포함, 29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근무했다.<sup>22)</sup>

그리고 조선인들 일부는 만주국의 유일정당 격인 협화회의 간부직에도 진출했고, 중앙·지방 공무원 시험에도 다수 합격했다(1940년대 전체의 1.5%).<sup>23)</sup> 그리고 조선인 교사들도 다수(조선인 교사자격 합격자는 316명으로 전체의 1.4%) 존재했다. 조선인들은 만주국 유수의 정부직할 고등교육 기관과 유학 인가 시험, 하얼빈, 치치하얼(齊齊哈爾), 룡징(龍井) 개척의학원, 다둥(大東)학원(고급 공무원 훈련 과정), 지엔귀(建國)대학(중일전쟁 후 창설된 만주국 최고의 국립대학), 중앙육군 훈련처(평텐군관학교), 본격적인 육군군관학교(신징군관학교) 등에도 합격자를 내었다. 박정희를 포함, 48명의 조선인들이 이 군관학교를 졸업했고, 이중 24명은 1941년부터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저질 조선인들에게도 만주는 기회의 장소였다. 조선인 경찰들이 잔인성을 발휘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하인, 막노동자, 가게 점원, 장사꾼, 마약장사, 포주, 부랑

22) 廣岡淨進, 『滿洲国間島省の人官僚構成』,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 編,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東京: 思文閣, 2009, 678~681쪽.

23) 한석정, 『재만조선인의 인구와 사회적 지위』(2009 만주학회 발표문) 참조.



자화한 조선인 등 별별 종류가 있었다.<sup>24)</sup> 처를 팔고 도망간 이들을 포함, 만주국 지폐와 수입인지 위조로 검거된 이들, 조선과 만주에서 암약하는 금괴 밀수단 등도 있었다.<sup>25)</sup> 이들에게 만주는 황야의 서부(wild west) 같은 곳이었다.

### 3. 만주 출신들

일부 조선인들에게 만주국의 가장 큰 의미는 귀중한 현장 경영의 기회이다. 이들은 관공리, 군장교, 경찰, 형무소 간수, 의사, 교사직에서 노무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것은 일본으로 이주, 유학했던 이들이 당시 일본에서 하급 노동자 외에는 별반 취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과의 중요한 차이이다. 음악세계에서도 해방 전 일본 유학을 했던 조선인들 90%가 만주에서 활동을 했다.<sup>26)</sup>

이 만추리언들(Manchurians)은 해방 후 자유당 정부에서 비적토벌과 군사 정훈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본격적으로 5·16 후 개발체제에 참여했다. 군부뿐 아니라, 국가 형성의 중요 부분인 교육, 이념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선근, 신기석, 이인기를 필두로 이들은 유교, 협화회식 조합주의, 반공, 화랑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관여하는 등 메이지유신의 교유사(敎諭使), 만주국 자치지도부와 같은 건국사상의 전도사가 되었다. 만주 출신이라 해도 지나친 엘리트, 즉 관동군 장교에까지 이른 이들(윤승선, 윤상필 등)<sup>27)</sup>이나 일본 육사만을 졸업한 군인들(이종찬 등)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자유당 정부에 일부 흡수되었던 총독부 고관 출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배출한 약간의 2류, 그러나 만주에서 실전 경험을 한 이들이 개발체제에 합류, 지도층으로 입성했다. 만주국의 것을 약간씩 바꾼 용어, 비슷한 부서뿐

24) F. C. Johnes, *Manchuria since 19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pp. 69-72; 윤희탁, 「만주국의 '이 등 국(公)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 2001, 160쪽

25) 『毎日申報』 1939년 3월 21일자.

26)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2005, 246쪽, 263쪽.

27) 山室信一, 「植民帝国・日本の構成と満洲国 ― 統治様式の遷移と統治人才の周流」, 『ピーター・ドウス・小林英夫編, 『帝国という幻想』, 東京: 青木書店, 1998, 191쪽.

만 아니라, 이에 같은 것들이 속출했다. 예컨대, 1942년 만주국 국책대강의 ‘서정쇄신’은 1970년대 한국에서 반복되었다. 5·16 멤버였던 유원식은 협화실업을 세웠고, 만주에서 자란 유석창은 한국에서 건국대학을 세웠다. 사관학교를 방불하는 엄격한 요사(寮舍) 생활의 만주국 건국대학을 모방한 듯한 교육기관도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 출현했다.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선, 만주는 모반의 땅이었다.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승리 후 남만주철도회사(만철)를 세우고, 철도의 보호 명목으로 관동군을 주둔시켰고 만주의 군벌 장쥘린(張作霖)을 파트너로 삼아 이곳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관동군은 일본의 다른 기관들과의 갈등, 도발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20년대부터 먼저 일을 저지르고, 사후에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편법을 배웠다. 청년장교들은 장쥘린이 고분고분하지 않게 되자 그를 폭사시키고, 1931년에 전쟁(만주사변)을 도발, 그 아들 장쉐량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듬해 만주국을 만들었다. 군의 위계를 무시한 전쟁도발과 건국 과정에서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등 영관급 장교들은 일본정부뿐 아니라 육군참모본부의 지시와 결정에 저항했다.

이 저항의 분위기는 1차세계대전 후 이른바 다이쇼(大正) 민주주의시대의 일본 군부의 수모 — 1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의 삭감과 2개 사단의 감축 — 를 반영한다.<sup>28)</sup> 이로 인한 군의 불만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걸쳐 여러 건의 불발 쿠데타로 표출되었다. 만주사변은 이 중 성공한 항명 사건이었다. 1936년 2·26사건의 가담자들이 만주로 전출되는 등 만주는 일본 군부에서 항명의 소굴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만주국 건국 후 관동군은 만철을 경쟁자로 여겨, 내부구조를 주물러 철도와 조사업무만을 맡도록 했다. 더욱이 그들은 만주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계획, 통제경제 방식을 취했다. 자유경제에 대한 이들의 혐오감 때문에 일본 기업인들이 만주국에 투자를 꺼려하기

28) Alvin Coox, *Nomonhan: Japan against Russia, 193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7-18.

도 했다.<sup>29)</sup> 육군본부는 만주국 건국 후 인사이동으로 관동군 조직을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본국의 지시에 저항하는 이들의 관성은 면면히 존재했다. 예컨대, 육군본부의 고위직(육군참모작전부장)에 있었던 이시와라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관동군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가 만주국을 방문하여 확전을 만류하자, 관동군 후배 장교들은 왕년에 그가 저질렀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고 불손하게 대어들었다.<sup>30)</sup> 일정 기간 관동군은 만주를 일본 본국이 간여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했다. 정치화된 청년장교들(육사 8기생)과의 결합, 박정희의 목숨을 건 5·16의 회임지는 관동군 장교, 만주사변, 2·26 등 항명의 이미지로 얹혀진 만주였다.<sup>31)</sup>

#### 4.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목격한 것은 관동군이 밀어 붙인 경제개발, 중공업, 도시, 철도 건설, 위생 개선 등 발전에 대한 강박적 신념, 혹은 하이 모더니즘적 요소이다. 이것과 강력한 국가가 결합할 경우, 특히 혁명 상황과 식민지의 온상에서 그 파장은 심대하다. 그 확산에서 일부 국가들은 불도저처럼 자연과 사회, 신체를 단순화, 표준화, 재단, 배열한다.<sup>32)</sup> 우선, 박정희 시대에 4차레나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깊은 영향을 드리운 것은 사회주의를 방불케 하는 만주국의 계획경제이다.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는 재벌을 통제할 수 없었다. 자본집약적인 산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후자뿐이었기 때문이다.<sup>33)</sup> 이에 비해 만주국은 관동군 수뇌부가 원

29) Katsuji Nakagane, "Manchukuo and Economic Development", pp. 133~58 in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edited by Peter Duus, Ramon Myers, and Mark Peatti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 142.

30) Mark Peattie, *Ishiwara Kanji and Japan's Confrontation with the We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 278.

31) 그는 만군 시절에 2·26에 가담, 만주로 좌천된 일본군 장교 간노 히로시(菅野弘)를 상관으로 모시고 많은 지도를 받았다(정세경, 『위인 박정희』, 75쪽;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26쪽). 그리고 건국 후 숙군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에 갔던 그를 살린 것도 백선엽 등 군의 만주인맥이었다(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30쪽).

32) James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 87~90.

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토였다. 이들은 제1차 경제건설(1932~1936), 제2차 경제건설(1937~1941) 등 당시 비사회주의권에서 가장 극단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추진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관동군의 반감은 상당했다. 1933년 1월에 만들어진 「만주국경제건설강요」(만주국 경제건설의 헌법에 해당)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관동군 특무부와 좌익들이 포진했던 만철경제조사회가 입안했다.<sup>34)</sup>

하이 모더니즘 요소가 한국에 소환된 계기는 한국전쟁이 초래한 파괴이다. 전쟁은 강력한 기득권 계급인 지주세력의 몰락을 초래했다.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에서 개발체제의 발목을 잡을 강력한 사회계급(지주나 자본가계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적 정서는 5·16 직후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반감과 사회주의체제를 방불케 하는 70년대 의료보험 시행 등에 이어졌다.

2차세계대전 종결 이래 세계를 뒤흔든 냉전구조는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와 그 대안인 사회주의라는 두 서구 모더니즘의 대결이지만,<sup>35)</sup> 한반도에 서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으로 심화되었다. 남북한이 채택한 모델은 국제적 족보를 가진 총력전 개념이다. 획일적 생산을 표방하는 미국의 테일러리즘(Taylorism)은 소련의 계획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초기 소련 사회주의의 상징인 세계적 규모의 마그니토고르스크(Magnitogorsk) 제철소는 미국 개리(Gary)의 유에스스틸(U.S. Steel)을 모델로 했고, 미국 기술자들은 공장 건립 초기에 소련에 와서 도와주었다.<sup>36)</sup> 소련에 영향을 준 것은 북미식 테일러리즘 외에도, 1차세계대전 중 독일의 공학적 사회, 산업 동원이었다.<sup>37)</sup> 열정과 강제가 혼합된 1920년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이른바 전투적 공산주의)에서 영웅적인 산업전사가 만들어

33)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chapter 3.

34) 山本有造, 「『滿洲国』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2003, 28쪽, 36~45쪽.

35) Odd Westad, *The Global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4.

36)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37) James Scott, *Seeing Like a State*, pp. 98-100.

졌고, 초스피드로 댐과 공장들이 만들어졌다.<sup>38)</sup> 이 산업전사, 근로봉사, 증산의 정신은 일본제국 중에서도 일찍 만주국에,<sup>39)</sup> 후일 남북한 체제에 이어졌다.

또한 만주국과 한국은 건설국가였다. 이미 정돈된 전전 일본에 비해 만주국에서는 확일과 직선을 추구하는 국가의 의지가 신속히 지형에 새겨졌다. 만주국에서는 수도의 건설을 위해 국도건설국(國都建設局)이란 기구가 만들어졌다. 유교 전통을 숭상한다고 표방했으나, 이것이 국가사업과 충돌할 경우, 간단한 의례와 함께 철거시켰다. 1960년대 군 출신 서울시장 김현옥이 추진한 서울의 강북 도시계획에 밀려 덕수궁의 담장도 안으로 밀려들어가는 등 속도와 효율 앞에 옛 생활양식이 많이 사라졌다. 개발체제의 강남 개발, 울산 공업단지 건설 등은 마치 만주국 수도 신징이 건설되듯 이루어졌고, 울산 개발의 경우 관련기관의 이름(울산특별건설국)도 그대로 이어졌다. 속도와 확일성은 양국의 상표였다.

또한 만주국은 무서운 동원체제였다.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삼아 공자에 대한 제사뿐 아니라, 충성으로 이름을 날린 고대의 장군인 관뎨(關帝, 즉 관우)와 송대의 순교자 위예페이(岳飛)의 제사를 봄, 가을 두 번 치렀고 수많은 '전몰 군경'들을 위한 추모식과 묵념을 치렀다. 전전 일본에서도 전몰자들의 합동 제사장소인 야스쿠니신사가 있었지만, 만주국의 것과 비교될 수 없었다. 충령비와 충훈탑 광장 건설과 추도식은 전국적으로 각 부서, 각 성, 현공서 수준에까지 따로 이루어졌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만주국 공식 행사에 위령제는 필수요소로 등장했다.

그리고 멸공대회가 있었다. 1960, 1970년대의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충령탑 제작뿐 아니라 시민대회, 반공대회, 멸공대회, 재건축조, 표어 짓기, 웅변대회 등의 모델도 만주국이다. 물론 1930~40년대의 일본 사회에도 사회동원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 단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민간(언론)의 호응, 혹은 국가와 사회의 긴밀한 상호교섭이 있었고 반공대회는 존재하지 않았다.<sup>40)</sup> 시민대회의 밀도, 횡

38)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pp. 69, 90-94.

39) 山室信一, 『キメラ：満洲国の肖像』, 268쪽.

수는 만주국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동원방식은 만주국에서 굴절, 증폭되었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응시하기 전 해인 1938년의 경우, 중일전쟁 직후의 비상시국을 반영, 정초부터 연말까지 수십 개의 행사로 극한의 동원이 진행되었다. 시민대회 대부분은 만주국 패망까지 반복되었다. 학생, 시민들이 강제 동원된 대회들은 국기게양, 황궁요배, 건국영령에 대한 묵도, 치사, 축사, 만세삼창, 폐회 등 후일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순서를 밟았다. 그리고 근검의 정신도 부과되었다. 1940년 국민정신 총동원 지침은 낭비, 허례허식의 폐지를 천명했다. 새로 제정된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에는 연회와 술을 금하고, 가정에서 청소를 실시토록 했다.<sup>41)</sup>

메이지국가(메이지유신 이후에 만들어져 1945년 패전까지 존속되었던)나, 중화민국도 위생을 새 국가건설의 중요한 항목으로 여겼으나,<sup>42)</sup> 만주국과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두 국가는 ‘불결’에 대해서도 소탕 작전을 폈다. 만주국 국가는 5월과 9월의 2주간을 매년 전국 청소기간으로 정했고, 강박적으로 방재 사업을 벌였다. 이런 것은 60년대 한국에서도 재현되었다. 양국은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 주변을 포위했고, 전국적으로 쥐를 잡았으며, 광견병 퇴치를 위해 길거리의 개들을 도살했다.

그리고 신체도 두 국가의 관할 안으로 들어왔다. 만주국은 독일 파시스트들을 연상시키듯, 체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 건국 첫 해부터 “건국 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거행(매년 5월 건국기념 운동대회, 후일 만주국 전국 체육대회로 불림)했다.<sup>43)</sup> 만주국체육협회가 발족, 각종 체육대회, 강연회, 영화시사회, 잡지 발간을 벌였고, 산하에 여러 종목별 단체를 거느렸다. 주요 도시마다 체육관

40) Sheldon Garon, *Molding Japanese Minds: The State in Everyday Lif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 6.

41) 한석정, 「동아시아 국가 만들기 연결고리: 만주국, 1932~1940」, 『中国史研究』 16輯, 148~150쪽.

42) John Fitzgerald, *Awakening China: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Nationalist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 105.

43) 『滿洲國政府公報』 1932. 5. 2.

을 건립, 중요한 행사마다 운동회를 벌였으며<sup>44)</sup> ‘체육향상, 민족융화’라는 구호의 건국체조를 제정했다. 1937년부터 매년 3월 1일(건국), 5월 2일(푸이<sup>溥儀</sup>의 방일), 9월 18일(만주사변) 등 사흘을 건국체조일로 정했다.

이 왕성한 체육활동도 한국에서 재현되었다. 개발체제는 만주국의 ‘건국’ 표어를 ‘재건’으로 바꾸어, 경제건설에 사용한 것 외에, 건국체조 대신 ‘재건체조’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했다. 그리고 양 국가는 대중예술도 적절히 사용했다. 전진 일본의 대중예술이 국가에 적극 협조한 데 비해, 만주국은 이것을 창조하고 전적으로 손아귀에 쥐었다. 영화의 경우, 만주영화협회(만영)를 통해 생산, 검열, 통제를 벌이는 이른바 국책영화의 틀 안에 있었는데<sup>45)</sup> 이 국책영화 제도는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정부는 영화와 음악을 ‘재건사업’에 동원했다. 중국인으로 분(扮)한 걸출한 스타 리코란(李香蘭)을 앞세운 만영 단독, 혹은 합작 영화들은 당시 만주국, 일본, 조선 등지에서 크게 흥행했다. 만영의 이른바 오민영화(娛民映畵), 계민영화(啓民映畵), 시사영화들은 만주국의 새 정책이나 역사를 선전하는 수단이 었다. 만영과 만철이 만든 수백 편 뉴스의 주제(산업전사, 건설, 위생 등)와 음악, 분위기는 한국에 많이 전달되었다.<sup>46)</sup> 영화를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장면, 예컨대, 땀흘리는 산업전사, 솟구치는 댐의 물 등이 60년대 한국 뉴스에 차용되었다. 계민영화 「이는 무서워」(발진티푸스 예방을 위해 만주국 민생부가 후원)의 음악을 신징음악단의 김성태가 맡았다. 극영화 「개대환희」(皆大歡喜)는 특급열차 아지아호와 자동차로 신징의 자녀를 방문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로 만주국의 발전상을 과시하는데, 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을 자찬하는 선전성 극영화 「팔도강산」과 닮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신은 5·16 직후 추진된 재건국민운동인데 이 운동에는 기독교, 덴마크 농촌사회 지향 등 여러 아이디어가 혼합되지만<sup>47)</sup> 공교롭

44)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3장 참조.

45) 山口 猛, 『幻のキネマ満映: 甘粕正彦と活動屋群像』, 平凡社, 1989.

46) 한석정, 「만주 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사회와 역사』 84집, 2009.

47) 허은, 「재건국민운동: '반동적 근대주의자들'의 접합과 분화」, 『박정희시대의 역사성』(심포지움 발표집), 2003, 37쪽.

게도 그 지도자들은 만주국 협화회 제복 비슷한 것을 입고, 협화회가 추진했던 의례 간소화 운동 등을 벌였다. 그 흐름에서 전국적인 ‘건전가요’의 보급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통적 폐습의 일소, 패배적인 트로트 가요의 배격을 수반했다.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망라하여, 한국 음악인들은 ‘재건사회’, 1960년대 중반 ‘월남전 파병을 위한 노래’ 제작 등에 협력했는데 앞에서 일렀듯 이들 대부분이 해방 전 만주에서 활약했다.

## 5. 나가며

모든 문화의 기원이 식민지적이라는 지적이 있듯,<sup>48)</sup> 제국주의의 중요 기능은 아이디어나 제도의 확산이다. 주변부는 제국의 중심이 이식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자극이 일어나는 실험장이다. 특히 만주는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 예술인들에게 각종 주제의 실험장이 되었다. 예컨대, 만주에서 거주했던 정윙성(중국 군가의 아버지)이 만든 중국 내셔널리즘의 상징인 「인민해방군가」는 러시아, 유럽, 중국풍이 혼합된 것이다.

만주국은 잔혹사에도 불구하고, 개발체제가 모방할 것이 많은 건설지향의 새 프로젝트였다. 1960년대 한국의 국가형성 자원은 메이지국가, 미군정 등이 있었다. 전자는 ‘부국강병’이라는 이념과 사회동원적 요소를 전해 주었다. 하지만 개발과 건설을 지향한 개발체제에 더욱 밀접한 자원은 만주국이다.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의 경험은 한국 개발체제의 구상에 시기상 가까운 것이어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포함, 많은 부분이 전해졌다. 일본과 아시아의 발전국가<sup>49)</sup>에 대한 논의에서 만주국은 빠져 있는데 기실 이것은 양자를 연결해 준다.

군부와 산업 테크노크라트가 결합한 만주국과 한국의 개발체제 앞에는 자본가, 토착지주 세력 등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형 발전국가와

48) 김철, 『식민지를 안고서』, 역락, 2009, 41쪽.

49)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Meredith Woo-Cumings(ed.),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의 차이이다. 또한 개발체제는 냉전시대의 치열한 남북한 체제경쟁을 통해 형성되었다. 만주국 건국에 개재된 항명, 도발성, 그리고 경제발전과 사회동원 방식 등은 박정희를 위시, 만주국 각계의 현장 경영을 경험했다가 후일 경제개발과 사회동원을 담당할 이들의 무의식에 전달되었으니, 만주국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중요 뿌리에 해당한다. 드 세르토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가 분리된 서양 역사관에 비해 일부 인도인들의 시간관에는 과거가 현재에 “켜를 지어 비추되어” 있다.<sup>50)</sup> 만주국의 기억은 한국의 개발체제에 켜를 지어 존재했다.

그런데 이 만주국적 요소의 모방이 반민족적, 혹은 악몽이라는 의미인가? 성공적 모방 혹은 토착화(domestication)는 일종의 능력인 듯하다. 위기를 내재하고 있었지만<sup>51)</sup> 개발체제는 냉전시대 남북경쟁, 나아가 국제적 경제경쟁, 혹은 세계체제론들의 용어를 빌리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의 힘겨운 상향이동의 한국적 적응방식이다. 자유방임이든 국가주도이든 경제발전의 방식에는 정석이 없다. 개발체제는 독일, 일본, 소련 등으로부터 만주국에 흘러내린 총력동원, 건설의 속도전, 혹은 하이 모더니즘 요소를 채택, 군대식 사회동원과 사명감,<sup>52)</sup> 그리고 전 국민에 고취시킨 근면, 자조의 정신운동을<sup>53)</sup> 바탕으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쿠데타 직후 이미 그는 “건설과 (전격적인) 속도, 한없는 전진”을 강조했고, 1970년 2년 반만에 준공된 경부고속도로를 “민족적 예술작품”으로 칭송했다.<sup>54)</sup>

최근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키노 3세는 필리핀 민주화의 주역인 아키노 전 상원의원과 코라손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의 가문(친가와 외가 모두)이 필리핀 굴지의 사탕수수 농장주임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 한국보

50) Michel de Certeau, *The Writing of History*, tr. by Tom Conle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4.

51)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67쪽 참조.

52) 이것에 대해 김형아, 『유신과 중화화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2005, 34쪽 참조.

53) 그는 18년간 줄곧 “잘 살아보자는 염원, 일하는 해, 중단없는 전진, 조국근대화의 신앙, 하면 된다는 자신감, 자조, 자립의 정신, 자신감, 후손에 남길 유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빈곤의 퇴치” 등을 강조했다. 박정희,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5 참조. 그의 대표적 정적 김대중 전대통령도 1980년 4월 관훈클럽 화견에서 그가 국민들에게 남긴 자신감이라는 유산을 인정했다(『동아일보』 1980년 4월 26일자).

54) 박정희, 『한국 국민에게 고함』, 12쪽, 249쪽 참조.

다 훨씬 유망하게 보였던 일부 아시아, 중남미, 유럽 국가들은 현재 봉건의 잔존, 국가부도, 빈부격차, 정치 불안, 심각한 치안 문제, 부패 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개발체제는 (민주화를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발군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중국인들에게 마오쩌둥의 장단점이 7대 3으로 정리된 것에 비해, 박정희는 ‘개발독재’, ‘파시즘’ 등의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 학계에서 거의 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다. 객관적인 논의를 천명하는 글들도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재확인, 총체적 공격으로 회귀하는 관성이 있다.<sup>55)</sup> 오랫동안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인식하는 일반인들과 학계의 평가가 이렇듯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한쪽이 과도한 것이 분명하다.

55)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등 참조.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반일 의식은 북한에 대한 고려 속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59년에 시작된 일본의 북송정책을 전후한 시기 이승만 자신의 발언과 북송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접촉 및 재일교포들의 북한으로의 귀환은 이데올로기적 전쟁터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했다.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면, 한국은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집단 안보동맹을 추진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승만의 반일 의식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인 및 과거사에 대한 발언 속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실용적인 대일 인식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그의 반일 인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주제어: 이승만, 냉전, 실용적 대일 인식, 미국의 대일 정책, 분단 상황

###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 한석정

투고일자: 2010년 5월 29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개발체제(1961~1979)의 식민적 연원은 연구의 빈 공간이다. 이 글은 그의 해방 전, 특히 그의 생시에 언급이 금기였던 만주국 시절(만주국 사관학교 졸업과 만주국군 장교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경험이 후일 개발체제의 운영을 과다 결정(혹은 예정)했음을, 그리고 그 중요 요소가 독일, 소련 등에서 발원, 만주국을 경유한 하이 모더니즘(총력동원, 건설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발전의 확산)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개발체제의 중요 환경인 냉전시대의 남북한 체제경쟁, 특히 한국 사회 동원의 뿌리가 만주국 시기에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주제어: 박정희, 만주국, 개발체제, 하이 모더니즘, 냉전

### 민족-멜로드라마의 악역들: 『토지』의 일본(인) | 김철

투고일자: 2010년 6월 14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 논문의 목적은 박경리의 장편 대하소설 『토지』를 멜로드라마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토지』는 강렬한 파토스, 과도한 감정, 도덕적 양극화 같은 멜로드라마의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악당들과 영웅적 초인들의 대결이 『토지』의 기본적인 서사문법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덕적 양극화이다. 선(인)/악(인)의 선명하고도 가차 없는 이분법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이 소설에서 조금도 변치 않는 원칙이다. 이 선악의 선명한 양극화는, 뜻밖에도, 아니 당연히, 양적으로 방대한 이 소설의 내부적 밀도를 매우 느슨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양극화된 세계